

2006. 5. 30.(화) 배포

금일 16: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기술팀장 송정수 (750-2330)

김재준 사무관 (750-2334) jjkim@mic.go.kr

## 정통부, 2015년까지 IT융합 부품·소재 육성에 4,802억원 투입

- ◆ IT융합 2대 서비스 플랫폼, 20대 부품·소재, 15대 원천기술 개발
- ◆ 초기시장 창출, 사업화 촉진 등으로 선순환적 발전구조 확립

정보통신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부품·소재 발전 위원회"에서 IT-NT-BT 융합 분야 부품·소재 산업의 집중 육성방안을 골자로 하는 「IT기반 융합 부품·소재 육성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IT 기술을 중심으로 BT, NT가 융합되는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융합 부품·소재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선순환 발전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부터 2015년까지 4,8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 및 인텔,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IT-BT-NT 융합기술 개발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장기적인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융합기술 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미래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IT융합 기술의 조기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IT융합 분야 서비스와 부품·소재를 동시에 개발하고 시범서비스, 관련 벤처기업 육성 등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미래 IT융합기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IT기반 융합 부품·소재 육성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사회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4대 전략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인간의 오감정보와 감성정보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오감통신 도우미 플랫폼과 건강·환경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환경 도우미의 2대 플랫폼을 도출하였다.

둘째, 서비스·플랫폼 개발과 병행하여 20대 핵심 IT융합 부품·소재 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7대 IT-NT 융합 원천기술과 8대 IT-BT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부처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IT융합 부품·소재 기술개발 산출물들이 적기에 시장에 진입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IT융합기술 시범사업, 벤처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T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조기 확산될 수 있기 위해 규제제도 정비를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IT융합 분야 신규 부품·소재 시장에서 연 81억달러의 생산액, 57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IT융합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하여 세계 3대 IT융합기술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IT기반 융합 부품·소재 육성 계획(안) 요약 1부. 끝.

## [참고]

# IT기반 융합 부품·소재 육성 계획(안) 요약

## 1. 현황 및 문제점

- IT산업과 바이오(BT), 나노(NT) 등 타산업이 컨버전스되면서  
신개념의 부품·소재가 개발되고 새로운 블루오션이 창출
  - 미래기술혁명을 주도할 분야로 IT융합기술시장이 급속히 성장 중
    - ※ '05년 277억달러 →'10년 928억달러(IT-NT분야 570억달러, IT-BT분야 358억달러)
- 해외 글로벌 IT기업은 헬스케어, 바이오칩,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융합기술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 융합분야 진출 글로벌 IT기업 : Intel, HP, Sun Microsystems, IBM, Hitachi 등
-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 기술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

## 2. 추진 방향

- IT융합기술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 분야를 도출하고 전략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IT융합 부품·소재 개발 추진
- '전략분야 기술선점 → 초기시장 창출 → 사업화촉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IT융합 부품·소재 산업의 선순환적 발전 도모

## 3. IT융합 부품·소재 발전 전략

- IT융합기술 전략분야 선정
  - 미래사회 서비스수요를 바탕으로 기술확보 가능성, 시장규모,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핵심 IT융합기술 분야 선정
    - ▶ IT-NT 7대 핵심기술: 이미지센서, 역학센서, 환경센서, 실리콘신소자,  
나노SoC, 전원소자, 광소자 등

- ▶ **IT-BT 8대 핵심기술:** 바이오정보분석, 바이오센서, 생체이미징, 바이오칩, 유해 유기물센서, 생체신호인터페이스, 바이오데이터보호, 생체정보보호 등

□ **IT융합 부품·소재 개발**

- 2015년까지 미래사회 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도출한 오감통신 도우미(UTC), 건강·환경 도우미(PLC)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 ※ UTC(Ubiquitous Terminal Companion), PLC(Pervasive Life-care Companion)
- 2대 서비스·플랫폼 개발과 연계하여 IT융합기술 분야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
  - ※ UTC 기반 11개 핵심 부품·소재, PLC 기반 9개 핵심 부품·소재
- 부품·소재 구현에 필요한 15대 핵심 INBT 원천기술 개발

□ **IT융합기술 사업화 촉진**

- IT융합기술 시범사업,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범부처적 규제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IT융합산업의 조기확산 환경 조성
- IT융합 분야 글로벌 표준화 주도, 공통서비스 지원, 해외정보 DB 구축·지원 등을 통하여 IT융합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

**4. 소요예산(안)**

구 분	1단계 (2006~2008)	2단계 (2009~2011)	3단계 (2012~2015)	계
<b>융합기술 개발</b> (INBT-UP2015전략 추진) - UTC, PLC - 부품소재(20), 원천기술(15)	1,190억원 (’06년:390억원)	1,200억원	1,840억원	4,230억원
<b>사업화 촉진</b> - 개발제작/시험/인증 등 공통서비스 -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등	135억원 (’06년: 45억원)	135억원	207억원	477억원
초기시장 창출(시범사업)	20억원	75억원	-	95억원
<b>계</b>	1,345억원 (’06년: 435억원)	1,410억원	2,047억원	4,802억원

\* 중기재정계획, 정보통신연구개발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참고1-1> IT융합 전략 서비스 및 플랫폼



### <참고1-2> IT융합 2대 플랫폼 20대 부품·소재 15대 원천기술

